

도심 속 자연 품은 마천루... 나만의 오아시스

아파트의 미학(美學)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최근 찾아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붉은색의 '힐스테이트' 로고가 도드라진 정문은 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5월말 입주를 시작한 초고층 수상복합아파트로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인근에 인천예술초, 송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가 오는 2025년 8월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는 랜드마크시티3호수공원, 송도센트럴파크 등이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아파트 단지는 지하 5층~지상 59층, 4개동, 총 1205세대 규모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114㎡▲115㎡▲139㎡▲162㎡▲214㎡▲217㎡▲237㎡▲238㎡로 구성됐다.

단지는 신축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송도 경관의 최종심지인 워터프론트 호수에 위치하며 외벽을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유리 외장재를 추가하는 커튼월 록 방식이 아닌 외벽 전체를 유리 외장재로 마감하는 커튼월 방식으로 지어졌다. 세대 통창 옵션이 분양 후에 적용돼 인천대교, 워터프론트 호수를 더 크게 조망할 수 있게 됐다.

단지에는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세 개의 조각상은 단지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조각상 '행복한 가족'은 행복이란 사소한 일상 속에서 보석보다 빛나고 가치가 있다는 평범한 진실을 표현해냈다. 경쾌한 컬러는 입주민들에게 분위기가 밝고 유쾌한 상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옆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인 '국립송도더스카이어린이집'과 놀이터 '버블오브젝트'가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품다'라는 작품도 인상적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안아주고자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조각상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가끔은 대립하지만 결국은 이웃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스페이스-트레이스-포지션'은 공간과 선율의 조화를 표현한 작품이다. 생동감물성과 공간해석에 대한 관계성을 이뤄 조형화한 조각상이다. 단지 내에 연못, 산책로, 분수대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인락한 분위기도 제공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근린공원을 조망해 휴식하는 열린 정원공간 '오브제라운지필드'는 티하우스와 결합된 선형연못이다. 공간의 경관을 강조한 공간이다.

'블루오브제라운지'는 인천타워대로와 인접한 보행출입구에 수목식재로 단지의 입구를 고급화한 곳이다. 옆에는 놀이터 '웨이브 화이트베어'가 있어 과도와 곰인형을 형상화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고층 단지답게 탁트인 뷰를 관람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계단오르기', '구름사다리' 등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는 피트니스존도 마련돼 있다.

/글·사진=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 ①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 ② 스페이스-트레이스-포지션
- ③ 품다 조각상
- ④ 소나무가 조성된 단지 내 산책로
- ⑤ 피트니스존
- ⑥ 단지 내 조경시설



국제업무지구역 초역세권 교통
송도센트럴파크·호수공원 인접
인천대교·워터프론트 호수 조망

어린이집·놀이터 등 가족 친화적
티하우스·선형연못 등 힐링 공간

스카이라운지 등 프리미엄 시설
고급화된 보행출입구와 자연 조경

